

# 연 26% 이상 고금리 '카드 리볼빙' 이용 급증

### 경기 불황 여파에 저신용자들 몰려

###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 요인 될수도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카드업계의 또 다른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 것으로 보인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KB국민카드 등의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을 이용한 고객 가운데 연 26~30%의 고금리를 적용 받은 고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는 리볼빙을 이용한 고객 가운데 64.3%는 연 26% 이상

의 고금리를 부담했다. 이는 지난해 6월말(51.8%)보다 13%p 가량 늘어난 것이다. 롯데카드도 지난해 6월말에 비해 4.9%p나 늘어난 36.8%의 고객이 이 같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카드(45.9%, 2.9%p ↑), 신한카드(11.9%, 4.1%p ↑), 하나카드(24.4%, 1.1%p ↑) 등의 경우에도 이용 고객이 늘었다. 반면 삼성카드는 올 6월말 현재 고금리 리볼빙 서비스 이용 고객의 비중이 10%p 가량 줄어든 47.6%를 기록했다.

문제는 카드업계가 올 4월부터 일제히 리볼빙 서비스의 최저금리와 최고금리 구간을 낮췄지만, 이처럼 고금리를 부담하는 고객이 오히려 늘어난 데 있다. 리볼빙 서비스 금리가 떨어졌지만 고금리를 부담하는 고객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리볼빙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5~30%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서비스 이용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리볼빙 서비스도 제 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처럼 저신용자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 급증은 카드업계의 또 다른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 여파로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리볼빙 이용 금액 가운데 상당액이 부실 채권화되면서 카드업계의 비용증가, 나아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6월말 현재 리볼빙 서비스 잔액은 6조원 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자의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카드업계로서는 '폭탄을 깔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금리 적용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은 이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은 우려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리볼빙 잔액(6조원)의 규모가 전체 카드 결제 금액과 비교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며 "일단은 총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서민연료 연탄 4년만에 오른다

### 무연탄 가격 연평균 5%인상

연탄 소비자 가격이 2009년 이후 4년 만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 및 연탄 원가 계산을 위한 용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의뢰해 지난달 초 용역결과를 제출받았다. 연탄 원료인 무연탄을 판매하는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1조4000억원대에 달하는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재무관리 방안의 하나로 무연탄 가격을 연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가격 현실화 방안을 정해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무연탄 및 연탄의 최

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연말 대선을 미치는 여파 등이 고려돼 연탄가격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년 11월 1일부터 무연탄(4급) 가격을 t당 12만500원에서 12만8630원으로 7.15% 올리고 연탄 공장도 가격을 개당 287.25원에서 373.50원으로 30%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연탄 소비자 가격은 개당 489원이다. 이 중에는 정부 보조금이 322원 포함돼 있다. 연탄 가격은 2002년 14년 만에 오른 데 이어 2006~2009년에는 매년 20~30%씩 올랐으나 그 이후에는 동결됐다. /연합뉴스

# 식품용 가성소다 희석액 혼입 'OB폴든라거' 오비맥주, 광주지역 수거율 90%

### 식약청 신고후 자진 회수 나서 인체에 전혀 무해... 사고 없어

오비맥주가 제조 과정 실수로 식품용 가성소다 희석액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 'OB폴든라거' 제품 자진회수에 나선 가운데 광주지역 수거율은 90%에 달하고 있다. 14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6월 26일~지난 9일 사이에 담당 직원이 빈 발효탱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밸브조작 실수로 극미량의 식품용 가성소다 희석액이 정상 발효중인 탱크의 맥주에 혼입된 사실을 파악,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자진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전체 30만 상자(1상자

는 500ml 들이 20병) 가운데 5만 5000 상자다. 오비맥주는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도매상 재고분을 제외하면 소매점에 전체의 10% 미만인 2만7000여 상자가 공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에 공급된 물량은 전체 물량의 2~3%인 3100상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비맥주는 주말과 휴일인 14일까지 광주공장과 영업부서 직원 등을 동원해 광주지역의 도매상 재고물량 1230상자를 전량 수거했으며 소매점과 식당 등에 풀린 1870상자 가운데

1570상자를 회수했다. 14일 현재 수거율은 90%에 이르고 있으며 소규모 가게 등을 포함해 나머지 300상자 회수도 다음주 중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오비맥주는 공장과 직매장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물량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오비맥주의 한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소비자 신뢰 차원에서 자진 회수에 나서고 있다"며 "소매점이 많아 완전 수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비맥주가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OB 폴든라거'에 식품용 가성소다 희석액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 제품 회수에 나서 14일 현재 광주지역에서 90%의 수거율을 보이고 있다. 14일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오비맥주 광주공장 직원들이 지난 6월 26일~7월 9일사이 제조된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최해태기자 choi@kwangju.co.kr

# 양파 6개월 만에 1kg당 2000원 아래로

### 가격 안정대 진입

지난 연말부터 천정부지로 치솟아 식탁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양파 가격이 6개월 만에 1kg당 2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양파 1kg당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8월 1990원을 기록했으며 9월에는 1959원, 10월 1949원, 11월 1951원을 기록했다. 양파 소매가격이 2000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1월9일 1992원을 기록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양파 1kg당 도매가격은 7월1일 810원, 2일 790원, 3일 800원, 11일 790원을 기록하는 등 이달 들어 790~810원을 유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양파·배추 수급조절 매뉴얼을 보면 7월 도매가격 기준으로 양파의 '가격안정대'는 1kg당 648~825원이다. 지난 2년간 양파 가격 폭락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이 양파 재배면적을 줄인 데다 올 봄 이상저온 현상의 영향으로 햇양파 출하가 늦어지면서 양파의 월평균 소매가격은 지난해 10월 1694원에서 11월 1821원으로 오른 후 12월 1940원, 올해 1월 2149원, 2월 2707원, 3월 2967원, 4월 3551원, 5월 3569원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5월 하순 이후 만생종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정부가 수입 물량을 늘리면서 6월 평균 소매가격은 2414원으로 떨어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여름 특수' 광주·전남 닭·오리 사육 증가

여름 날들이 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닭·오리 사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3년 2분기 가축동향 조사'를 벌인 결과 6월 광주·전남 지역의 닭 사육 마릿수는 2047만7824마리로 전 분기보다 29.8% 증가했다. 총계는 47만100마리로 육계, 산란계 입식물량이 증가하면서 전 분기보다 48.5%, 육계는 1639만8600마리로 6월 이후 신규입식으로 37.7% 각 증가했다. 오리도 563만446마리로 전 분기보

다 15.7% 늘었다. 육용오리는 3월 이후 산지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 분기보다 13.8% 증가했으며 종오리는 오리 수오리랑과 소비량 증가 등 공급물량 공급에 대비해 신규 입식마리수를 늘리면서 30.8%가 급증했다. 한·육우는 51만5265마리로 전 분기보다 2.8% 증가한 반면 젖소는 2만9770마리로 0.2% 감소했다. 돼지는 103만7949마리로 전 분기보다 4.6%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도시민 10명중 8명 "농어촌으로 여름휴가"

**농어촌공사 설문**

도시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올해 여름 휴가를 농어촌으로 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에 따르면 지난 4~7일 일산 킷백에서 열린 '2013 농어

촌을 알려주려고'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또한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의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그렇다'(65%)고 응답했다. 휴가 유형과 관련해서는 가족단위(76%), 기간은 2박3일(78%), 적정휴가 비용은 20만~40만원(55%)란 답이 가장 많았고 농어촌공사는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자연산 참솨를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솨 보양식전문점

###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 참솨 음식** 토종 참솨닭 / 솨 청둥오리 / 솨 삼계탕
- 한방 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촨달백숙 삼계탕

토종참솨닭 (90% 식사소 포함) **40,000원**  
 촨달백숙 **38,000원**

**솨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안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솨닭** 062)515-5757(솨칠솨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헤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 하자없이 20년은 너뿐히가는

#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